

# 끝없는 부품 납품비리...특하면 고장...주민들 1년 내내 '원전 공포'

## 2013 이슈 진단 ⑤ 원전 비리 및 잇단 고장

“불안해서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핵심 시설인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던 한 해였다. 한빛(영광)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주민 뿐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끊임 없이 터져 나온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에 실망하면서 잇따른 가동 중단 등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통보하듯 내놓은 추가 원전 건설 의지를 피력한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응은 허탈하다.

박용섭 민간환경감시기구 한빛원전감시센터 소장은 “원전 확대에 대한 찬·반에 앞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계획으로만 정할 일이 아니

## 한빛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511개 신뢰성 추락

### 불안 커지는데 더 짓겠다는 정부... 지역민 거부감

지 않나”고 말했다.

한빛 원전은 올 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주박’이나 다름 없었다. 핵심 시설임에도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이 드러나면서 주먹구구 식 점검 및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한빛 원전은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이 511개(56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은 추락했다.

잡은 고장과 부실 정비 논란도 이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감을 부채질했다.

한빛 원전의 경우 지난 4일, 재가동한 지 6개월 만에 한빛 3호기가 터빈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을 포함해 올들어 수 차례 고장으로 발전이 자동 정지됐다.

전력 수요를 내세워 충분한 점검 없이 가동하는가 하면, 허가받지 않은 재질을 이용해 증기발생기를 점검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 발표가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반감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은 오는 2035년 전체 전력 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지금의 26.4%보다 높은 29%로 잡겠다는 게 골자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원전 비중을 29%로 유지하려면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11기를 빼고도 원전 7~10기를 더 지어야 하는데도, 통보하듯 발표했다는 점에서 반발 심리가 거세다.

당장,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배포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방 도시를 불모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등 원전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설득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다면 내년에도 ‘원전 반대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후원의 밤’이 지난 13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광주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5단체 및 경제계, (사)희망나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다.

## “캄보디아에 도움 준 광주시민에 감사”

### 광주 온 캄풍스류 주지사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

오는 20일 준공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캄풍스류 주(州)의 오삼 오론 주지사 등 주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광주시청을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캄보디아 캄풍스류 주 오삼 오론 주지사가 지난 13일 광주시청을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광주진료소 설립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오삼 오론 주지사 일행은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강 시장과의 환담을 통해 “광주진료소 설립과 관련, 광주시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캄풍스류 주민과 캄보디아인을 대신해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도시 광주를 존경한다”며 “광주진료소 덕분에 광주와 인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 도시가 교류·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캄풍스류 주에서도 광주진료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는 민주와 인권을 위해 항쟁한 도시며, 무엇보다 인권이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라며 “광주가 비록 잘 사는 도시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어려운 나라에 형편이 닿는 대로 돕기 위해 진료소 설립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캄보디아 진료소가 1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캄풍스류주도 앞으로 광주진료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존

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적 부분이 필요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삼 오론 주지사는 강 시장 접견에 이어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을

찾아 면담했다. 조 의원은 “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캄보디아 형제들이 광주진료소를 통해 많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인술로 펼치는 ‘광주 정신’ 시민 동참을”

### ‘캄’ 광주진료소 건립 후원의 밤 중흥건설·의사회 1천만원 기부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동남아시아에 전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Gwangju Clinic)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이 지난 13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일보를 비롯한 광주시 의약 5단체와 광주시의원, 광주시 관계자, (사)희망나무 관계자, 다문화 가정,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오는 20일 준공될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캄풍스류 주(州)의 오삼 오론 주지사와 주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주진료소 공동운영위원장인 최동석 광주시 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동남아시아 국가에 전파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됐으며,

이제 광주진료소를 통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국가에 광주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오삼 오론 주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진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광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캄풍스류 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 지역에 많은 의료혜택과 진료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진료소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도 이어졌다. 광주진료소 공동운영위원장인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이사 1000만원의 성금을, 삼성생명 명예사업부 상무인 임순이 (사)희망나무 이사가 500만원을 각각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의사회는 앞서 광주일보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가 진행하고 있는 광주진료소 건립기금 모금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밖에 조선대 병원과 광주시 약사회,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전성현 원장, 동광건설 황철 부회장이 각 100만 원씩을, 이준행 전남대병원 교수 50만원, 미르치과 정병호 원장이 20만 원을 성금으로 기부했으며, 광주시 간호사회와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성금을 기부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 매년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캄보디아 의사를 조선대 병원으로 초청해 수련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진료소는 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치료의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주여성들의 소식을 친정에 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시기 : 겨울방학 기간 중
- 시간 : 3~4 시간
- 비용 : 무료
- 내용
  -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 및 언론분쟁사례
  -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 신청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참조
  - ※ 문의 : 수시교육팀 (02)397-3062~4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건립 성금 모금 동참하세요**

- ◇ 예금계좌 = 광주은행 013-107-337079 (예금주: 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 ◇ ARS 성금 모금 = 060-700-0775
- ◇ 문의 전화 =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2-222-3566) (사)희망나무 사무국 (062-675-7118)

光州日報社

**선진 교육, 특성화, 세계화를 통한 21세기 휴먼치의학 전문 인재 양성**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전국 치과대학 중 최초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학·석사통합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14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신입생 모집**

"고교졸업(예정)자 대상"

- 모집기간 **2013.12.19(목) - 12.23(월)**
- 정시거군 **20명 이상** (수능 100%, 수시 미등록 후기)
- 정시내군 **5명** (수능 50% + 학생부 50%)

입학상담 **062-530-1042**

[Http://dent.jnu.ac.kr](http://dent.jnu.ac.kr)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3 전남대학교 송년음악회 **2013. 12. 26(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